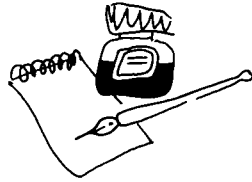


편집 후기



신록의 계절.

자연의 푸르름은 우리에게 언제나 생기를 돋구어 주고 미래에 대한 결실을 약속한다.

「방재와 보험」이 어느덧 30호의 지령을 맞았다. 그 간 깨알같은 글자들과 씨름하노라면 이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인색해질 때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도 한 순간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오로지 본지를 사랑해 주시는 못 독자 제위께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내마음을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심기일전하여 가을호를 준비하자. 그래서 역대의 稀作을 만들어 보자. 그런 뜻에서 올 여름휴가는 푸르름만이 있는 산으로 갔으면 좋겠다.

본호에 옥고를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崔>

삶이란 예측 못할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상식을 기준삼고 무엇이든 당연스레 장담하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상식이란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

통계적으로 99%의 확실성이 있다해도 나머지 1%의 가변성 때문에 안심은 금물이다. 다만 옛사람들의 지혜를 따라 盡人事하고 待天命하는 수 밖에 없다.

화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취할 태도는 같다. 최악의 경우라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적이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 철저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고보니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방재와 위험관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믿음직스럽게 성장하기 위해선 관계당국과 업계의 지속적인 투자가 앞서야 하리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다른 해보다 한결 일찍 찾아온 여름이 수은주를 잔뜩 끌어올려 놓았다.

「방재와 보험」을 위해 옥고를 주신 집필자와 끊임 없이 성원해주신 독자들에게서도 건강하고 값진 여름을 보내시기 바란다. <鄭>

큰 뗏목은 거센 물결에도 끄떡이 없다. 그러나 작은 뗏목은 물결에 휩쓸리기 십상이다. 큰 지혜는 어려움이 클수록 더욱 빛나지만 작은지혜 - 요령은 빛을 잃기 십상이다.

「방재와 보험」지도 특수전물 소유주의 준교양지 정보교환지로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듯 싶다. 갈수록 구독요청이 늘어가고 단골로 독자투고를 해주는 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이번 호에 게재된 열대어 기르기 원고를 보고 조그만 어항을 구입해 실제로 금붕어부터 기르기 시작했다. 지식과 지혜는 깊을수록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쉬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경험을 쌓는 일이 뒤따라야만 한다. 잠시도 쉬임없이— <秦>



防災와保險

<통권 제30호>

1986 / 여름호
계간 / 비매품

등록 / 마-827호 (1973년 10월 11일)

발행 / 1986년 7월 1일

인쇄 / 1986년 6월 30일

발행겸 편집인 / 이대용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국보기획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